

일본의 양계소식



1. 절임매실을 닭에게 급여하면 폐사율을 낮추고 난각을 강화시키는 2중 효과를 얻는다

- 와카야마쎄(和歌山縣) 양계시험장의 발표 -

말린 매실의 부산물이나 절임매실을 닭에게 급여하면 “폐사율이 줄어들고 산란이 진행되면서 낮아질 수 있는 난각의 강도도 거의 저하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고 와카야마쎄(和歌山縣) 양계시험장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와카야마쎄는 일본에서 매실의 산지로 알려져 있고 절임매실을 건강식품으로 이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지만, 닭의 생산성이 증가된다는 것이 실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계 시험장의 연구진은 「앞으로 계란의 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에 주력하여, 특산품인 매실과 같은 상품개발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절임매실은 소금에 절인 매실의 파란매실에서 나오는 과즙으로 건조매실과 같이 피로회복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구연산 이외에 칼슘 등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이러한 약효 때문에 절인 상태로 판매하거나 건강식품회사에 원료 형태로 납품하고 있다.

와카야마쎄내의 농가에서 대량으로 나오는 절임매실을 이용하여 1999년 10월부터 2000년 7월까지 약 2년 간에 걸쳐 연구하였다. 그 결과 폐사율은 대조구 대비 절반 정도의 수준이었고 산란이 진행되면서 서서히 난각이 얇아져 깨지기 쉬운 난각의 강도를 측정하였을 때 난각강도의 저하는 대조구에서 더 심한(8% 정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운반 중에 생기는 파란에 의한 계란의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병 선

한일사료(주) 기술연구소 부소장
농학박사

2. 계란사업의 정세

1) 소비

식생활의 변화에 의하여 증가하였지만 1999년 이후부터 큰 변화가 없음

2) 일본의 생산동향

1998년도 생산축소에 의하여 약간 감소하였었지만 소비의 영향으로 1999년부터 큰 변화 없음

3) 수입동향

전체수요의 5% 정도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였지만 1999년부터는 커다란 변화가 없음

4) 도매가격의 변화

2000년 5월 이후에는 수요의 감소로 전년도에 비하여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가격이 폭락했을 때에는 난가 안정기금을 활용하여 가격보상을 실시)

5) 사육동향

소규모 사육농가를 중심으로 매년 4~9% 정도 감소하고 있음

성계 암컷의 사육수수는 근년 들어 큰 변화가 없었지만 1999년 이후부터 조금씩 감소하고 있음

※ 상세한 내용은 한일사료 기술연구소로 문의 바람 (031-280-4046)